

# “경허스님 출생년도는 1846년”

## 김지견박사,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등 오류 지적... ‘경허당 散考’ 서



◇경허스님

1918년 간행된 이능화(李能化)의 (조선불교통사)가 (경허집) 등 객관적 자료의 검증없이

세간에 퍼져있던 경허(鏡虛)에 대한 부정확한 평판을 근거로 기록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간 알려진 경허의 출생년도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문화연구원 김지견교수(불교학)는 최근 발표한 논문 ‘경허당 산고(鏡虛堂 散考)’를 통해 ‘만약 이능화가 한암(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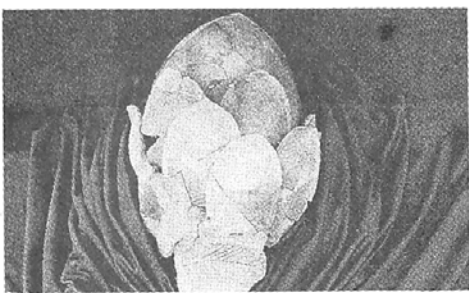
云(枕雲) 해명(慧月) 만공(滿空) 한암 등이 지닌 인품과 종지(宗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면 통사의 경허장(鏡虛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한 “경허의 탄생년도는 한암이 찬(撰)한 행장(行狀)의 경우 11년을, 만해전(萬海撰) 약보(略譜)의 경우 3년을 각각 소급하여 비정(比定)한 병오년(丙午年: 1846)이 된다”고 밝혔다.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세상의 선류(禪流), 더부러이(경허의 선종)를 본받아 심지어는 음주식육(飲酒食肉)이 보리와 무관하고 행음행도(行淫行盜)가 반야에 방해되지 않

는다고 창언(倡言)하고 이를 대승선(大乘禪)이라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경허의 사승(師承)과 무관한 불법지(沒法子)들이 유행시킨 폐풍(弊風)을 ‘세전소위(世傳所謂)’나 ‘세인위(世人謂)’나 하면서 아무런 객관적 검증도 거치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

김교수는 또한 경허의 생년이 1846년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경허가 1900년에 찬술한 (사통화상행장(師通和尙行狀)) 1편에서 경허 본인이 그해 ‘연광(年光) 55’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라’ 크라스키노 성지내 건물지에서 출토된 연화상사.

### 연해주 유물 불상·연화문 상륜 치미 발해문화 우수성·독창성 입증

공주대 이남석 교수 발표

러시아 연해주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크라스키노의 발해유적에서 토제 연화문 상륜(上輪)과 불상 치미같은 고급유물이 나오는 등 그 문화적 독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발해문화의 높은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지난 2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연구소(소장 장경호) 주최 ‘해의소재 우리 역사 관련 문화유적의 현황과

보존’ 세미나에서 이남석교수(공주대 사학과)는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유적’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와관련 토론회자로 나선 한규철교수(경성대 사학과)는 “크라스키노지역은 강력한 해상세력이 삼켰을 개연성이 높다”며, “기(器)등을 현지에서 직접 만든 점과 동아시아 어디에도 없는 토제 연화문 상륜과 불상 치미 같은 고급유물이 나오는 사실은 그 독자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공원 파괴 ‘합법 요인’ 53% 김종원교수 ‘우리나라 국립공원...’ 서 밝혀

행정기관의 개발유무 법·제도 제정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생태학적 구조 분석과 보전전략’에 의하면 우리나라 15개 국립공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 8가지 가운데 53.1%(인 17가지)가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생태계를 심하게 파괴하는 요인(강)교란요소 8가지 가운데 합법적인 것은 조림, 경작 및 밭, 스키장, 골프장 건설 등이었고 비합법적인 것은

밀렵, 산불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적 교란요소’는 사할진설, 산나물 채취, 무속행위, 소음과 스키장, 골프장 등 6가지였다.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등산객수도 중요한 교란요소로 나타났다. 사할을 찾는 신도들은 ‘합법적인 약(弱)교란요소’로 나타났다. 생태계에 미치는 사할의 영향과 관련, 김교수는 “사할건축은 필요한 한도내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공원내의 각사찰은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주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사람의 주련

권영한

(금조강부도량종) 한열기 붉은 연꽃 해동에서 솟으니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나누시네. 어제저녁 보타산의 관세음

### 통도사 관음전(觀音殿)

보살님이 오늘 아침 도량안에 강림하셨네. 해설 관음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전각이다. 천수천안, 관자재, 11면33

은신들은 모두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말이다. 통도사 관음전은 조선조 영조대왕 원년(1725)에 용암(龍巖)대사에 의해 창건됐다. 위치는 불이문과 대웅전의 중간. 전내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은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 관세음보살 신통 자재력 찬미

그래서 이 주련의 첫구절에 ‘동해에서 솟은 연꽃’이란 표현이 있는 듯하다. 물론 관음신앙과 바다와의 밀접한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은 강화도 전등사와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를 중심으로 발달된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주련의 내용은 한마디로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과 신통력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는 첫 구절에서 두 번째 구절까지 한결같이 흐르고 있다. 동해에서 솟은 연꽃, 보살님이 오늘 아침 도량안에 강림하셨다는 것도 신통자재의 극단적 표현이다. 보타산은 관세음보살님의 주거처이다. 굴이 잠소를 든다면 인도 남쪽 해안이라 전하지만 상징성이 강하다. 그곳의 관세음보살님이 도량(통도사)에 나투셨다는 것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뛰어 넘어 ‘현재’의 우리들에게 나투시는 관세음보살’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를 초월했다는 것은 광대무변의 법계를 두루 비추이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표현이며 천수천안의 한량없는 자비행의 표현이기도 하다. (인동 경안교 교사)

### 환자에 대한 처방답변이 추상적...

문 지난 26호에 나온 ‘어린 애가 무서운 병에 걸려’라는 제목의 문답을 보고 답답한 심정 글할 길 없어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울 길은 없겠는지요. (근중병·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홍호정사)

답 매호마다 아픈 사람들의 하소연이 있어서 저 자신도 피눈물이 납니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어지는데 필요하다면 제 몸이 가루가 되어도 좋습니다.

딱한 사람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듯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물을 길어 마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상제를 믿고 팔정도 믿고 심이인연을 믿어야 합니다. 그밖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철철같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어느 대목 하나라도 한 데로 떨어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경전의 구절구절이

我)를 설교하셨지요. 질투나 미움 따위는 참으로 소중한 마음이지만 내가 왜 추상적인 말을 했는지, 실은 추상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걸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 ‘추상적’이라는 ‘나의 분별·사랑’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 시조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했는데 많은 불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왜 잘 풀리지 않느냐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를 하는데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어야 말할 수 있고 말졌으면 그게 놓은 것입니다. 믿고 놓고 조용히 지켜 보세요.

지켜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으니 지켜본다는 생각을 짓지 마시구요.

(편집자: 26호 질문자의 주소는 번지수 불명이라서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 불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문 스님, 저는 왠지 불행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림음선원 대불스님께 묻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대로 진리의 설파입니다. 그러나 우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게 ‘그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느어는 경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알음알이에 불과하지요.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믿는 것이란 내 몸의 세포 하나 하나 남김없이 부처님 말씀으로 충만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어, 아니 수조(水)개에 이르는 모든 세포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다’라고 확신할 때 그 믿음은 완벽하다고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친다고 할까요. 아무튼 믿음이 이런 생사결단을 하고 들어갈만큼 철저해야 합니다.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믿는다는 정도가 아니지요.

믿음이야말로 온갖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몸 아픈 사람이 생사를 내던질만큼 믿고 들어갈 때 거기에 반드시 크나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무슨 계산할 수 있는 결과를 뜻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목숨 때 어놓고 들어가는 믿음에 어찌 눈 앞의 결과를 운운하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나는 믿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믿는 게 못되고, 결과나 따지는 계산에 불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가르침에서건 ‘나’ ‘나의 것’을 전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제하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정하셨습니다. 무아(無

我)를 내 이디지도 힘들게 사는가 하는 생각에 잠을 못자는 날도 많고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서울시 양천구)

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인 얘기가 있었다면 글을 읽는 다른 이에게도 참고가 될텐데 없으니 아쉽군요.

행복이란 자기가 만든 것이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 아니지요? 누가 가져다 준다거나 돈·건강·명예 따위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번뇌이구요.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프게 살고 옹졸한 생각을 자꾸 하게되면 삶도 옹졸해 질 것은 분명하지요.

세끼니 겨우 때우는 형편이라도 오손도손 화목하면 행복할 것이고 산해진미를 차려 놓아도 아옹다옹하며 살면 편치 않을 테지요. 가난하지만 부자라 사느냐, 부자지만 가난뱅이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그러니 마음을 풍요롭게, 늘 따뜻하게, 누굴 탓하거나 조건 따지지 않고, 잘났다 못났다 하는 생각도 내 내려놓고 현재의 위치,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매사를 복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세간의 행복이란 상대적인 것이니까 내 한 생각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은 내 들 안에, 내 손 안에, 내 생각 속에 있지 먼 데, 남의 손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 잊지 마세요.

성아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2장경

##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라비(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가고 흘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먼저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곳에 선물물 가지고 갔으면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믿소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놀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 리즈너워 강의 / 황광우·이강욱 옮김  
신국문 정2권 / 각권 1,500원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권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